

제3절 순천에서 겪은 여순사건*

1. 내가 겪은 여순사건①

증언 : 윤기남

대담 : 이학영

증언시기 : 1994년 11월 18일

이 기록은 여순사건 당시 남로당 순천군당 조직부 간부로 일하고 있었고 여순사건 이후에는 순천군당 위원장까지 했던 윤기남의 증언을 채록한 것이다. 1994년 11월 18일 당시 광주시에 있는 그의 자택을 방문하여 채록한 것인데, 2차 증언채록을 계획하던 중 1995년 봄 불치의 암으로 돌아가셔서 더 자세한 기록을 받지 못했다.

윤기남의 증언을 통해 여순사건이 일어난 1948년을 전후로 한 순천 인근의 좌익운동의 분위기나 대략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귀중한 증언이라고 생각하였다. 당시 좌익의 지도자들이 모두 검거되거나 산으로 도피하여 자세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남로당 순천군당의 간부로 일했던 그의 증언은 어쩌면 순천지역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증언이라 생각한다. 예정대로 2차, 3차 증언을 채록하지 못하여 자세하지 못한 부분이 많지만 그대로 여기에 올린다.

이학영 : 선생님께서 순천에 오신 것이 언제였습니까?

윤기남 : 1947년 3월에 파견되었지요.

이학영 : 그때 정식 직함은 무엇이었습니까?

윤기남 : 도당 지도원이죠. 오르그라고 하죠. 순천군당에 파견된 도당 오르그죠.

이학영 : 순천군당 조직 지도원입니까?

윤기남 : 그때는 지도원을 전부 다 오르그라고 했죠. 다시 말하면 조직원들이죠.

이학영 : 그러면 군당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윤기남 : 지도죠. 상급당에서 하급당으로 지도하러 나가는 것이죠. 각 군에 하나씩 내려갑니다. 소속은 도당이구요.

이학영 : 필요할 때만 나가는 겁니까? 항상 있는 겁니까?

윤기남 : 왔다가 올라가고 다시 내려가고 그러죠. 도당하고 군당하고 연락도 하고 조정도 하고, 다시 말하면 상급당의 결정 이런 것들을 하급당에서 실행하는지 지도하고 검열하고 도당에 보고하고 이런 역할을 하죠. 중앙당 결정이나 도당 결정들의 시행을 지도하고 검열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학영 : 해남이 고향이라고 하셨는데 일제 때는 해남에 계시다가 해방 이후에 도당으로 오신 겁니까?

* 제3절은 이학영(李學永) 집필임.

윤기남 : 제가 해남에서 8·15를 맞았습니다. 그때는 내가 21살 때니까 민청사업을 하다가 정치학교를 갔지요. 중앙당 학교로 간부양성소지요. 거기서 있다가 1946년 4월에 학교가 폐쇄되어서 공부를 다 못하고 전평(전국노동조합평의회) 조직부에 가서 좀 있었지요. 지금 서울역 바로 앞의 대우빌딩 자리입니다. 거기서도 호남 쪽 지방에도 내려가고 했지요.

이학영 : 이미 그때는 분위기가 좋지 않을 때겠지요?

윤기남 : 아니요. 그때는 좋았어요. 1946년 그때는 합법 아닙니까? 그때는 전부가 합법입니다. 그때 조선공산당 본부는 미도파에 있었지요. 그때는 정자옥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있었고, 그 옆에 공청원 밑에 정판사가 같이 있었고 그럴 때입니다. 그러고 있다가 1946년 8월에 해남으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이학영 : 그때는 입당하셔가지고 정치학교에 가신 겁니까?

윤기남 : 그때는 입당은 안 했죠. 공청원이죠. 그때는 청총이란 것이 있었고, 아직 민청이 나오기 이전입니다. 공청생활을 하다가 6개월이 되면 공산당원으로 되지요. 남로당이 나오기 전이니까요. 1946년 7월인가 8월에 해남으로 내려갔어요. 해남에서 활동을 하다가 10월 대구인민항쟁을 맞았죠. 해남에서는 11월 10일인가 파급되어 해남서 맨 마지막으로 일을 치렀죠. 그걸로 인해서 고향에 못 있고 피신하게 되었습니다.

이학영 : 이때 11월항쟁을 어떻게 했습니까?

윤기남 : 그때 해남은 뭐 군 경찰서 하나하고 옥천면지서 하나만 남고 짝 타버렸어요. 지서장들이 면에 하나씩은 다 죽었을 거요. 우리 면에서도 죽었지요. 그때 지서장이 북에서 내려온 사람인데 일제 때 헌병대에 있던 사람입니다. 아주 악질이어서 숙청당했는데 그때 행동대원 책임자가 임씨라고, 임수경이라고 한 집안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잡혀가지고 사형을 당했지요. 나도 그때 행동대원을 했는데 그래서 고향을 뜨게 되었지요. 부산으로 순천으로 서울로 돌아다니다가 서울에서 도당으로 소환된 것이 1947년 2월인가입니다.

이학영 : 이때는 이미 당에 가입하셨습니까?

윤기남 : 그렇죠. 제가 당원으로 가입한 것이 1946년 5월입니다. 도에 내려오니까 순천으로 내려가라고 해서 파견된 것이 1947년 3월입니다. 내려가자마자 1947년 3월 22일 3·22전국총파업이 터졌습니다. 10월인민항쟁을 다시 뭐하자는 거였지요. 그래서 바로 그 지도사업을 했지요. 순천은 그때 철도사무소가 있어서 중심지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면당에 내려가서 간부들 양성 학습지도하다가 밀고당해서 체포되어버렸습니다.

이학영 : 어디에서 그랬습니까?

윤기남 : 별량면 송학리에서 그랬죠. 그때 면 중에서도 별량면이 약했을 때라 나가서 핵심들을 불러 들였는데 아지트로 쓰던 집에서 그 아버지가 밀고를 해버렸지요. 그래서 완전히 포위를 당해가지고, 내려가서 한 달도 못 되어 체포되었습니다. 미군정 포고령 2호 위반인가 소위 무허가 집회, 불법 시위 뭐 이런 죄목으로 6개월 징역에 1년 집행유예받고 8월엔가 나왔어요. 거의 6개월 다 살고 나온 셈이지요.

이학영 : 그럼 나와서 다시 또 순천에서 활동하셨어요?

윤기남 : 나는 고향에는 돌아갈 수가 없죠. 갔다 하면 난리나니까요. 그래서 다시 도로 올라갔는데 도에서 다시 순천으로 파견되었어요. 그때 순천이 상당히 약할 때입니다. 순천군당에서 지원사업하라고 해서 순천군당 조직부 성원이 되었지요.

이학영 : 그때 직함은 무엇이었어요?

윤기남 : 군당 조직부 지도원으로 블록책임자로 나가 있었어요. 1차로 쌍암·월등·주암 그쪽으로, 그 다음에 여순사건 나기 전에는 낙안·송광·외서 그쪽 블록 책임자로 좀 있었고, 도당 조직부 부부장으로 일할 때는 상사·서면·황전 그쪽으로, 뭐 순천이라고 하면 안 다닌 데가 없습니다.

이학영 : 지금도 환하시겠네요.

윤기남 : 환하지요, 거기는. 그때 내가 아지트로 썼던 데는 다 알죠. 조직부에 오래 있었으니까. 별량면 36개 부락인가 되는데 그때는 누구도 나한테 거짓말을 못 했어요. 그때는 인원도 많지 않고, 어느 곳 어느 세포하면 세포 책임자가 누구누구인지까지 다 알았어요. 해룡만 내가 별로 안 나갔고 서면·황전·쌍암 쪽은 말할 것도 없고, 월등·별량·상사 쪽으로는 활동을 많이 했지요. 1948년 8월에 총선거를 했으니까요.

이학영 : 5·10선거 말입니까?

윤기남 : 5·10선거는 따로 있었어요. 1947년 8월에 징역살고 막 나오니까 1947년 8·15경축투쟁으로 전부 도망가고 없어서 내가 수습했지요.

이학영 : 8·15경축투쟁이란 무엇입니까?

윤기남 : 1947년 8·15 때 황전면에서 전부 죽창 가지고 지서 습격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학영 : 한번 그래 버리면 다시는 동네 못 들어올 것 아닙니까?

윤기남 : 지도자들만 그렇지, 부락민들은 전부 다 그러니까 누가 반동인지 어떤지 가릴 수가 없었어요. 전부 민주화니까. 더구나 건구칠동·삼재팔동 같은 데는 대치란 곳만 빼고는 모두 그랬지요. 대치마을은 지주 집이 있어 거기는 피하고 꼭 산 밑으로 돌아다녔습니다. 거기만 빼고는 뭐 다른 곳은 합법적으로 돌아다니고 했습니다. 대치 박씨들이 밀고하고 하니까 거기만 딱 숨겨버리면 건구칠동 같은 곳은 대낮에 마음대로 돌아다녀도 괜찮았어요. 여순사건 후에도 우리 유격대들이 건구칠동 같은 데는 합법적으로 낮에 돌아다녀도 밀고니 그런 것은 없었어요.

다음은 1948년 8·25비밀선거에 대한 증언이다.

이학영 : 좀 전에 말씀하신 8월 선거란 것은 뭐니까?

윤기남 : (이쪽에 5·10선거가 끝나고 정부가 수립되자) 1948년 8월 (좌익도) 선거를 했습니다. 그 선거를 끝내고 9월 9일 인민공화국이 들어선 것 아닙니까? 그때 남쪽에서도 대의원 선거, 비합법 선거를 했습니다.

이학영 :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서면으로 받았습니까?

윤기남 : 처음에는 서명하고 도장 찍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탄로나가지고 피검되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무기명으로 날인만 전부 했습니다. 그때는 지문조회도 할 수 없고 하던 때니까 뺏겨봤자 별것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전부 다 투표를 했습니다. 그때 순천서도 유권자수의 60 몇 퍼센트 투표했습니다. 그때 나는 쌍암지구 책임자로 있었는데 쌍암지구는 한 75프로 80프로 가까이 했습니다. 그때는 면장까지 투표를 했으니까요. 어떤 의미로는 반강제성도 있었고, 솔직히 이야기하면 부락에 나가서 포위하고 바쁘니까 집단적으로 인주 대기하고 찍었고 밤에는 플래시 대고 했어요.

산골짜기는 낮에 가서 옆에 보초 세워놓고 하고 했어요. 릴레이 보초를 세우는데 쌍암이란 데가 상도·중도·하도 세 골짜기로 되어 있습니다. 골짜기 입구에다 보초를 세워두면 거기서 지서가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부락부락마다 깃발로 하든지 뭐로 하든지 다 신호를 조직해가지고 지서에서 나오기만 하면 보따리 싸들고 상도에 있다가 하도로 넘어가고, 선암사 쪽으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였습니다. 그때는 기동력이 그렇게 빠르지 않을 때니까요. 차도 없던 때고요. 우리는 그때부터 유격전 식으로 했지요. 보초를 세워놓고 순경들이 이 골짜기로 온다고 하면 얼른 다른 골짜기로 넘어가서 활동을 하고 했어요.

몇 개 부락을 포위해놓고 해설하고 선전하고, 그러면서 전부 무인 받아가지고 보따리 싸들고 이리 오면 저쪽 골짜기로 피하고, 당시만 해도 우리 정치세력이 많았으니까 가능했지요.

심지어 면장까지 출근하는 것을 붙잡아가지고 찍었어요. 면장, 면서기 뭐 투표 안 한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이학영 : 그런 사람들은 강제로 했겠지요?

윤기남 : 일종의 강제지요. 그때는 3단계 투표를 했어요. 첫째 조직원들은 완전히 비합법으로 다 해버리고, 그 다음에는 집단적으로 해설을 하고 선전을 해서 투표를 하게 하고, 마지막으로는 강제성을 띠고 했지요. 그때만 해도 우리쪽 사람이 많아서 면장이나 면서기 잡고 이리이러한 것이니까 찍으라고 하면 안 찍을 수가 없었어요. 지서가 있는 동네까지 다 했으니까요. 그때 쌍암이 잘했다고 해가지고 곡성 목사동까지 지원을 나갔습니다. 순천군에서는 내가 제일 잘했다고 해서 조직부 부부장으로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조직부부장을 좀 하다가 1948년 여순사건 직전에 불심검문에 걸려서 내가 또 체포되었어요. 쌍암 나가다가 학구지서에서 붙잡혔지요. 학구지서는 역에 기차가 도착할 때는 꼭 순경들이 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서 앞은 괜찮을 줄 알고 그 앞을 지나갔지요. 그런데 하필이면 1947년도 잡혀갔을 때 얼굴을 안 사람을 딱 맞닥뜨려버린 겁니다.

나는 마침 연락원을 앞세우고 문건은 거기 다 전부 맡기고 가던 중이라 몸에는 아무 것도 없었지요. 취조를 받는데 당시 나는 내 주소를 전라북도 장수로 해놓았어요. 해남이라고 하면 조회하고 뭐하고 해서 쉽게 걸려들테니까요. 컴퓨터도 없고 전화도 잘 안 통하고 하던 때라 전라남도라고 하면 도경까지 연락이 되니까 아예 전라북도로 해버린 것이지요. 전라북도까지는 안 되니까요. 그때는 조회가 안 돼요. 조회란 것이 없을 땐니다. 하더라도 며칠씩 걸리고요.

1947년도 처음 잡혀갔을 때는 도에서 내려왔다고 하니까 때는 많이 맞았지만 스물세 살이라 아주 어린 때이고 학생도 아니고 완전히 뿔나무꾼으로 가장해서 탈탈 털어버렸어요. 명칭이 노릇을 해버린 것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새끼 아무것도 아니구만 해가지고 빠져나왔지요. 그런데 다음에 잡혔을 때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때 내 이름이 김갑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천 재판기록을 찾아보면 김갑현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그 순경이 “너 갑현이 아니냐? 이 새끼” 하면서, 두드려 맞기 시작했어요. 당시는 두드려 맞는 것이 보통이던 때니까요. 그때 나는 군당 조직부부장까지 하고 군 조직을 거의 내가 가지고 있다시피 할 때 아닙니까? 그때 잡히면 고문도 심하고 체포되었다 하면 일단 안 불면 안 되게 되어 있을 때입니다. 조직이 그것 때문에 망가지고 그럴 때 아닙니까? 정부수립 이후니까 험할 때입니다. 그런데도 나중에 들으니까 경찰서에도 우리 프락치가 있었다고 해요. 학구지서에도 있어서 나중에 군당에서 들으니까 내가 멍청하게 그대로 있었으면 거기서 빠져나갈 수도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내가 어디 가냐고 묻는데 월등 간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쪽 상대방 이름을 대지 못한 거예요. 월등에는 유씨들이 많이 사는데 유아무개라고만 대어버렸어도 괜찮았을 건데 이상한 이름을 댔던 모양이에요. 쌍암 쪽에 조씨들이 많이 사니까 유아무개집에 간다고 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마침 이 순경이 월등지서에서 있었던 모양이라. 지서장이 대뜸 월등에는 그런 사람 없는데 하더라 말입니다. 이리 되어가지고 의심을 받게 된 거지요.

그래서 취조를 받기 시작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냥 튀었지요. 조사받고 있던 책상을 엮어버리고 바로 학구 건너가 산 아닙니까? 벼가 치렁치렁 할 때인데 내가 여기서 실패한거라. 눈을 건너서 저쪽 산으로 붙으려고 하니까 벼가 밭에 감겨 갈 수가 있어야죠. 엄청나게 사람들이 쫓아와 격투하다가 결국 다시 붙들려버렸지요. 아마 지금도 취조기록을 찾아보면 비호같이 도망가버렸다고 나와 있을거요. 장작 들고 격투를 하고 난리 소가 한번 벌어졌거든요. 나중에 온 학구 사람들이 다 나와서 구경을 했어요.

총을 쏘아버리면 그만일 텐데 그때는 아직 사람한테 총 쏘거나 할 때는 아니었어요. 칼빈

이랑 다 있었기는 했지요. 그때는 스물네 살이니까 팔팔할 때 아닙니까? 그러나 결국 포위당 해서 잡혀버렸지요. 그리고 매만 죽도록 맞았는데 끝끝내 고문을 이겨냈어요. 아무 단서가 없었으니까요. 어떻게 다시 둘러맞추기는 해야겠고 그래서 용길이한테 간다고 둘러부쳤지요.

용길(김용길)이 하고 나하고는 그전에 잡혀갔을 때 거기서 만났어요. 용길 씨는 내가 쌍암 지구 책임자로 있을 때 함께 일을 했지요. 그때 그 사람은 이미 다 알려져버렸고 비합법으로 완전히 들어가버린 사람이라 용길 씨한테서 연락받고 심부름 가는 길이라고 둘러댔지요. 그것만 가지고는 죄가 형성이 되지 않으니까요. 나는 완전히 심부름꾼으로 가장을 해버리고 일단 그렇게 해서 그 사건은 일단락되었어요. 그때 프락치로 있던 형사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때 프락치들은 군당위원장들이 직접 관리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여순사건 난 뒤로 내가 책임자가 되고 나서 알았지요. 당시 정남현이란 군당위원장이 붙잡혀가지고 그 친구도 물고문당하고 나도 물고문당하고 그래도 끝끝내 안 불고 버티니까 주소가 일정치 않다는 경범죄로 29일 구류를 받았습시다. 그래서 여순사건 직전에서 나오게 되었지요. 여순사건이 10월이니 아마 10월 초나 9월 말경에 나왔을 겁니다.

나오니까 다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체포과정부터 취조과정까지 프락치가 있었으니까 다 보고를 받고 있었지요. 처음에는 내가 잡혔다고 하니까 군당이 난리가 났다고 그래요. 선을 전부 변경하고 아지트를 읊기고 했는데 결국은 안 불고 나오니까 검열이 된 셈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일정기간 검열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지방에서 일정기간 자기활동을 해가지고 검열을 받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요. 나는 바로 낙안 쪽으로 다시 담당구역을 받아서 활동을 했습니다.

이학영 : 당시 순천군당 조직은 어떠했습니까?

윤기남 : 그때 지윤섭 씨가 하는 사람이 군당위원장이었어요. 30대 후반이나 되었을 건데 아마 순천읍 사람일거요. 조직부장은 염동석인가 될 겁니다. 선전부장으로는 광양 옥곡인가 어디 출신인 김기선으로 당시 순천중학교 교편을 잡고 있었을 겁니다. 그당시 간부들로 서정섭 씨가 나보다 두 살인가 어렸는데 황전면당위원장을 했고, 김정길이는 주암면당 책임자로 있었어요. 사회단체는 서정섭 씨 삼촌인가 되는 서윤중이란 사람이 농맹을 맡고 있었어요.

당시 농맹도 군단위 조직, 면단위 조직이 있었어요. 여맹도 있었고요. 1948년 8·25선거를 끝내고 내가 조직부 부부장으로 올라갔는데 당시 조직상황은 환하지요. 그때 순천군 당세가 전체 얼마인고 하니 5,700에서 6,000 가까이 되었습시다.

이학영 : 정식 당세라고 하면 당원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위 동조자들까지 말한 겁니까?

윤기남 : 정식으로 가입한 사람만 그렇습시다.

이학영 : 그럼 굉장히 수가 많은 겁니까?

윤기남 : 그렇지요. 이미 이쪽 정부가 들어선 뒤니까요.

이학영 : 당조직 말고도 또 있었습니까?

윤기남 : 농맹(농민동맹), 여맹 등이 비합법으로 있었고 학생조직들은 따로 있었지요. 민청(민주청년동맹) 당시는 민애청이라고 했죠. 그때 민청 책임자는 김성봉이라고 나중에 산에 올라가서 잡혀서 학살되었죠. 철도노조 아니고도 그때 노조가 있었는데 아마 노조위원장이 지윤섭 씨 동생인 지유섭 씨가 하는 사람이 우체국엔가 근무했었는데 그때 노조위원장을 했어요.

순천철도당은 따로 특별당부가 군당하고는 분리되어 있었어요. 독자적으로 도에서 직접 관리했지요. 순천철도당부라고 해서 군당격이었어요. 그때 철도당부위원장이 강아무개라고 했고, 조직부장이 순동무라고 했어요. 그때만 해도 전부 가명을 썼지요. 선전부장은 생목동 사는 강동무라는 사람이 했습니다. 당시 철도노조는 합법이었지만 당부는 비합법 지하당으로 들어있었지요.

이학영 : 그러면 당시 경찰서 사찰계에서는 다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윤기남 : 그렇죠. 누가 누구인지는 다 몰라도 누군가 당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겠지요. 당시 당이 인원수가 얼마라고... . 못잡아내지요. 당시 1개 면에 수배받아가지고 정식으로 노출된 사람만 해도 7~8명에서 10여 명에 가까우니 전군적으로 해도 당시 70~80여 명이 노출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안 잡히고 할 정도면 지하조직이 얼마나 튼튼했겠습니까?

당시만 해도 경찰서가 우리한테 포위되어 있는 셈이었어요. 포위망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매일매일 경찰서 동향보고가 다 들어옵니다. 이쪽은 5,000명 조직세력이니까요. 겉으로는 자기들이 통치하고 있어도 내적으로는 우리가 다 면사무소고 지서 어디고 우리 조직원이 안박힌 데가 없었습니다. 경찰서 안에 누가 잡혀가서 어떻게 취조를 당하고 있고 조직은 뭘 불었고 전부 다 그때 그때 일일보고가 들어올 정도였어요. 경찰서 아침 조회에서 우리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움직이지 않아요? 몇 시부터 어디서 불심검문을 어떤 식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는 미리 알고 거기를 빠져나와버리지요.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큰 조직이 살아남죠.

그때는 우리 조직이 살아남기 위해 무지무지하니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야간에는 어떻게 한다, 오늘은 어디로 아지트를 옮긴다 등등요. 금곡동, 매곡동 동외리 요쪽에 우리 아지트가 많았어요. 저전리 그쪽에도 조금 있었고요. 생목 그쪽에는 철도노조들이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잠복근무를 해도 우리가 미리미리 아지트를 이쪽 저쪽으로 옮겨버리니까 잡을 수가 없었어요.

당시 학생 중에서도 여학생들이 많이 활동을 했는데, 옮길 때는 여학생들이 쪽 앞에 가면서 살피고 이상하고 위험한 것이 있다 싶으면 근방에 사는 합법 당원들이 나와서 포위하고 보초 다 보고해서 저쪽 미리 장만해놓은 아지트로 무사하게 빠져나가지요. 그때 조직배가운 동이란 것을 남로당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당시 박현영이가 말하듯 100만 당원이라고 했습니다. 100만 당원 중에서도 당시 전남이 전국의 최고였어요. 1948년 8월경 인민공화국 수립 직전에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형식적으로라도 대의원선거를 치르고 우리 대의원들을 평양까지 보내는 그 난리를 쳤지요. 그때는 물론 지금보다 경찰력도 수사력도 상대적으로 뒤떨어졌지만 한쪽으로 그렇게 세력이 절대다수였으니까 그런 것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에서 전남이 남로당세가 가장 셌는데 전남에서는 나주가 가장 셌습니다. 그 다음에 구례·보성·해남인데 해남은 그전 사건으로 파괴되어버렸고, 그리고는 보성·여수요. 여수·순천·장흥·영암이 중간 수준이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좀 이름난 곳이 곡성이고 광양도 좋았지요. 광양은 그때 당세로서는 순천만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사업을 순천에서 광양으로 지원을 나갔겠지요. 당시 옥룡 그쪽으로 우리가 지원을 나갔으니까요. 그때 순천이 당세가 비교적 좋은 편이었어요. 제일 약한 데가 담양, 함평, 무안 그쪽으로는 조직이 약한 편이었습니다.

이학영 : 순천은 면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윤기남 : 면세로 보면 제일 강한 데가 즉, 숫자로 많은 데가 서면 그 다음이 해룡 북부요. 해룡 남부는 별볼일 없었고요. 상사도 좋았고 그 다음에 황전·쌍암·별량이고 제일 약한 곳이 월등·외서·송광입니다. 낙안은 참 좋았고 주암은 약한 편이었습니다.

그때 주암은 용길이가 있었는데 당내 갈등도 좀 있었고 해서 주암이 상당히 골치를 좀 아프게 했어요. 주암·월등이 약해서 내가 나가 있었지요. 외서도 약하고 황전도 약했고요. 뭐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내가 잘한 편에 속했던지 다 내가 들어가서 수습하고 세 확장하면 또 다른 데로 옮기고 약한 데만 쫓아다녔죠. 그러다가 여순사건이 터져버린 겁니다.

다음은 여순사건에 대한 증언이다.

이학영 : 어느 날 갑자기 생각도 않았는데 터져버린 겁니까?

윤기남 : 그렇죠. 여순사건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려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 우리의 역사적 상황, 배경, 이것들을 생각해보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해해야만 그것이 당의 지도에 의한 것이냐 자연발생적인 것이냐, 계획적으로 한 것이냐 아니냐가 판가름이 날 것입니다. 또 그것이 정치노선상 우리나라 통일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한 것이냐, 우리 현대사에 어떤 평가를 받아야 하느냐가 이야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역사문제를 연구하는 데서 중요한 것이 됩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여순사건은 무장투쟁·무장폭동으로 투쟁의 최고단계의 형태로 발전했다고 하는 유격투쟁에 대한 의미만 부여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조선문제 해결에 그것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하는 평가가 있어야 합니다.

제 생각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그때 당시 상황은 1947년도 미소공동위원회가 파탄되어버린 때입니다. 1946년 2월엔가 정식으로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렸는데 멈춰버리고, 1947년 3·22 투쟁이라고 하는 철도노동자들의 총파업은 중단되어버렸던 미소공동위원회를 다시 열라고 하는 항의의 총파업이었습니다. 그레가지고 공동위원회가 5월엔가 열렸을 겁니다.

그러다가 7·27투쟁 후에 곧 분열되었습니다. 미국 쪽에서 참가 정당·사회단체문제로 결렬되어버렸는데 결렬되면서 소련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냐 하면 소련군대는 북에서 철수한다고 발표하고 철수일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미국하고 동시 철수를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미국에서 반대를 했어요. 그러나 소련군대가 철수를 해버리니까 미국군대도 1948년 말까지 철수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공포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거의 목시적인 여론이 되어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2차대전 연합군의 승리로 인한 민주적 분위기로 봤을 때 미국이 철수를 하지 않으면 식민지로 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 침략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낙인이 찍히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럴 때니까 미국이 그해 12월 말까지 철수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비추어 남로당의 노선은 미군철수할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에 대한 대책을 이야기할 때였어요. 이미 남쪽에도 8월 15일 정부가 서버렸고 북쪽에도 9월 9일 정부가 서버렸단 말입니다. 이런 상태로는 안 된다고 했지요. 그래서 그때 노선은 소련이나 미국이나 외국군대가 완전히 철수했을 때는 남북통일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 이미 유엔에서는 남북 총선거문제가 이야기되고 있었습니다. 총선거를 하더라도 우리는 그때 이미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합법적인 총선거를 하더라도 자신이 있으니깐 우리 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당시 조직배가운동을 전개했던 것입니다. 총선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지요.

이학영 : 그러니까 전체 노선이 무력투쟁노선이 아니고 선거를 통한 평화노선이었군요?

윤기남 : 그렇지요. 평화노선이었지요. 그때 우리가 직접적으로 총선을 주장하지는 않았지만 소련이 철수하고 미국이 철수하면 유엔에서 조선문제의 해결방법이 무엇이겠느냐, 어차피 총선거나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었지요. 총선에 대비하려면 인적 확보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남로당의 조직배가운동을 통해 당이 계급당이 아니라 대중당으로 변했습니다. 그전에는 계급당이기에 때문에 민청원이나 여맹원이나 아무나 쉽게 당원이 될 수 없었지만, 이제는 거의가 다 당원으로 흡수가 되었습니다. 당세가 굉장히 커져버린 상황에서 무장폭동을 일으킬 만한 상황이 절대로 아니었어요. 무장폭동을 일으키면 미군이 철수를 안 할 것 아닙니까? 결국은 그때 상황으로 보아서 어디까지나 우리 당의 노선은 평화통일 노선이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야만 당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학영 : 오늘날 이렇게까지 고착되어버릴 줄은 몰랐겠네요.

윤기남 : 그렇죠. 우리는 어디까지나 고착은 반대한 거죠. 1948년 4월 김구 선생이 올라가서 했던 남북협상은 깨져버리고 단독정부가 수립되고, 북쪽은 북쪽대로 정부가 수립되어 영원히 분단될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이대로는 안 된다,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당시 이승만 정부는 대대적인 좌익적결정책을 펴고 있었습니다. 굉장한 탄압이 시작되었어요. 일반인은 물론 군대에 대한 숙군작업이란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군대 내에 정보과라는 것을 다 배치해가지고 군대 내의 민주세력, 즉 이전에 전과가 있는 사람들을 뽑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여순사건을 일으킨 14연대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14연대 내의 구성원, 성분, 구성조건, 그것이 일어날 수 있는 내적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수 14연대는 원래 광주 4연대에서 떨어져나간 것입니다. 그 구성원들 대부분이 지방에서 활동하다가 쫓겨간 사람들이 14연대를 모집한다고 하니깐 대부분 다 거기에 들어갔지요. 그래서 구성원 자체에 민주세력들이 많이 침투되어 있었어요. 하사관도 4연대에서 주로 파견되었는데, 4연대도 민주세력이 많이 침투되어 있었고 하사관들은 거의가 다 민주세력들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구성원들은 대부분 여수지방에서 모집했습니다. 그리고 그 14연대 안에 당부란 것이 조직되어 있었습니다.

이 특별당부는 도당위원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지도원이 직접 파견되어서 지도하고 있었고, 당시 조직 직접책임자는 지창수였어요. 그때 조직지도 오르그는 조동무라고 키가 큰 사람이 맡고 있었습니다. 지창수는 나중에 산에 있을 때 보성지구 우리 부대 군사지도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다 들었습니다. 어떻게 조직했고 어떻게 일으켰다는 것도요.

그러니까 그때 숙군이 시작되니까 부대 내에서 불안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다가 제주도 4·3사건이 발발한 후로 제주도 진압작전에 동원시킨다 하니깐 불안이 겹쳐지기 시작할 거죠. 이중삼중의 상황들이 여수 14연대의 기본적인 봉기의 동기가 된 거죠. 그때 민주세력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4·3사건이란 어떤 사건이며 거기서 진압을 한다면 누구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우리는 양심상 못 한다, 우리 동족에게 총부리를 돌릴 수는 없다, 거기서 굉장하 그런 고민들이 되었지요.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학영 : 당원들이 그랬던 말입니까?

윤기남 : 그렇죠. 지창수 이야기죠. 이제 당지도부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다고 해서 도당에 올려도 이렇다 할 지지도 결정도 없고... ..

이학영 : 그때 연락이 제대로 안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당시에 당은 이미 다 깨져가지고 연락도 안 되고 해서 착오가 일어난 것이라고 하는 의견이요.

윤기남 : 아니에요. 생각해보십시오. 그 거창한 사건을 일으키고 군대를 동원하고 하는 대사건을 일으키는데, 당이 유야무야해가지고 그 역량이 되겠어요? 어렵도 없는 일이죠. 지창수 이야기를 들으면 그때 부대배치부터 장교들에 대한 책임까지 전부 나누고 충성을 신호로 해서 일사분란하게 움직였다는데, 당이 아무렇게나 되어버렸다면 말도 안 되지요. 그 사건 바로 며칠 전에 조 동무라는 군사 오르그를 내가 순천에서 만났을 때 중대상황이 일어날 것 같다는 눈치를 비추고 갔었어요.

이학영 : 그러면 도당에서도 알았다는 이야기군요?

윤기남 : 도당에서도 알았죠. 그런데 지금도 궁금한 것이 도당에서 결정을 못 내렸다는 것입니다. 군사 오르그가 순천을 지나갈 때 그런 눈치가 보였는데, 미루어 짐작건대 도당에서 아마 결정을 못 내렸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이학영 : 그러면 14연대 당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이네요?

윤기남 : 그렇죠. 지창수 이야기는 도당에서 그런 결정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지에다 위임한 상태인데 당 지하조직의 파괴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이 된 것 같아요. 지하를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군대 자체만 행동해라.

이학영 : 여수군당은 건드리지 말라는 거군요.

윤기남 : 그렇죠. 그러니까 여수 지하당하고 연결유대는 갖지 말고 군은 군 독자적으로 달리 행동을 도모해라, 이런 것이 암시된 것이 아니겠느냐는 거죠. 출동명령이 내렸으니까 가기는 가야 하겠고, 조직 내에서는 반란을 일으키자느니 일부가 가야 한다느니 하는 문제로 분분하니까 조직 오르그가 불러올라갔을 것 아닙니까? 출동날짜가 있으니까 그 안에 대책이 서야 할 것 아닙니까. 촉박한 상태에서 도당에서 결정된 것은 지하당에서 연계관계만은 확실하게 한 것 같아요. 어쨌든 지하하고 합세해가지고 대대적으로 폭동을 일으켜라 이런 것이 아닌 것만은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14연대가 올라오다가 사실은 순천에서 내리지 않고 바로 구례로 가려고 했다는 거거든요.

이학영 : 구례구로 해서 어디로 가려고 했지요?

윤기남 : 바로 지리산으로 가려고 했지요. 군 독자적으로 유격활동을 하려 했지, 민간인들과 함께 봉기할 계획은 없었다고 봐야지요. 나중에 조 동무란 사람도 만났어요. 다음에 순천군 이야기 할 때 나오겠지만, 군은 군대로 순천군당은 군당대로 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문제가, 그대로 올라가버렸으면 순천군당은 그대로 잠복해버렸을 테니까 아무 상관이 없을 터인데, 그만 순천군당이 일어나 버렸거든요. 같이 합류해가지고 터져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려면 이쪽 조직하고 저쪽 조직 지도부하고 서로 연락이 있고 그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나 순천에서 봉기가 일어날 때를 보면 지방조직하고 군 조직하고는 별개로 활동해라 그런 것 같아요.

이학영 : 순천군당에는 전혀 지시가 안 왔습니까?

윤기남 : 안 왔죠. 나중에 그 문제로 나하고 대판 논쟁을 하고 했습니다. 여수에서도 마찬가지로 자기들만 일어나가지고 가버렸으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나고 피해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군대란 것이 한번 일어나 터져버리고 폭발해버리니까 통제를 못 해버린 거죠. 물론 일이 터질 때까지는 조직이 역할을 했지요. 그러나 한번 터져서 난리를 쳐버리고 시내로 퍼져버리니까 통제고 뭐고 안 된 거죠.

이학영 : 여수군당도 별 수 없이 호응을 한 것이군요.

윤기남 : 그렇죠. 과오를 범한 것이죠. 거기에 호응을 안 했어야 하는데... . 그때 분위기란 것이 다음에 순천군당에서 토론을 할 때도 알 수 있었지만, 완전히 해방감 그런 것이었어요. 일생당하고 산 것 이때 복수라도 한번 해보자 하는 식으로요, 도취해버린 거죠. 기본적인 노선을 생각하지 못한거죠. 사실은 그런 투쟁이 안 일어났어야 하지요. 총선까지 평화적인 분위기를 밀고 나가서 미군 철수 후의 대책을 봐야 하는데요.

이현상 : 중앙당에서 보내 지리산에 내려왔지 않습니까? 1948년도 말에 지리산에 도착해가지고 14연대 출신들 보고 한 이야기가 당신들이 얼마나 역사적으로 과오를 범했는지 아느냐, 우리 역사를 우습게 만들어버린 것이 누군지 아느냐, 14연대가 얼마나 중대한 과오를 범한지 아느냐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김지회도 혼나고, 조 동무란 사람은 총살명령을 받았습니다. 과오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 해서 총살명령을 받은 것 아닙니까?

1949년 10월에 여순사건 1주년을 맞았을 때 당시 나는 유치지구에 있었는데, 그때 도당에서 주관하고 거기 내가 순천에서 간부로 일했다 해가지고 봉헌도 하고 꽃다발도 올리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도당에서는 14연대의 정치적 과오에 대해서 자기 생명을 바쳐서 청산해야 한다고 했어요. 이것이 그때의 목표였어요. 그때 공공연하게 14연대 출신들에 대해 어느 정도 간부였던 사람들은 다 자기 생명으로써 과오를 청산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기왕에 일어난 유격투쟁이니 자기 생명을 바쳐야 한다고요. 그런 것으로 봐서 완전한 군사모험주의였다고 할 수 있지요.

이학영 : 그러면 14연대가 푹 밀고 나왔을 때 여수군당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결국은 합세를 하게 되는데 미리 알고 계획적으로 합세를 한 것은 아닐까요?

윤기남 : 아니예요.

이학영 : 혹시 나중에 여수군당 사람들에 무슨 이야기 같은 것 들은 적은 없습니까?

윤기남 : 당시 여수군당 위원장이었던 유목윤이란 사람이 나중에 산으로 와서 대흥사지구(뱀사지구?) 사령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 이야기도 그래요. 자기들은 도당에서 지도도 안 받았다고요. 순천군당이나 여수군당이나 똑같은데 별도로 지시가 내려갈 턱이 없죠. 순천도 그렇지만 거기도 부대가 난리를 치고 합법적으로 사령본부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서로 연결이 될 것 아니예요? 걱정도 없고 하니까 군당에서 나가서 이거 어떻게 된 것이냐, 어떻게 했으면 쓰겠느냐 하다가 합류해가지고 합법적으로 토의하게 되고 그런 거죠. 사전에 이렇게 하자 하는 계획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요.

이학영 : 여수군당에서 오관을 할 수도 있었겠네요. 이걸로 해서 전국적인 봉기로 일으켜 보자는 그런 생각요.

윤기남 : 그럴 수도 있죠. 또 부대 내에서도 오관이 있었지요. 확대되면 모두 함께 들고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식으로요. 실제 당시 군산이나 마산, 대구 같은 연대들에 조직세력이 강했으니까요. 자기들처럼 완전히 장악하고 있으니까 같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었겠지요. 실제 당시 선동하고 봉기시키기 위해서 지창수 연설에서 그것을 오히려 조장시켰지요. 이것은 우리만이 아니다. 전국적인 상황이다. 해방은 곧 눈앞에 다가왔다. 북에서도 내려오고 있다. 이런 유언비어가 실제 유행되었습니다. 봉기시킬라고 하니까 그런 전술상 데마고그(선동 정치가)가 나타났고, 나중에 여수군당도 산에 올라가서 자기비판을 했지요.

그렇게 해서 한번 일어나니까 모두 들고 나섰지요. 여수에서는 학생들 특히 여학생들이 영웅적으로 싸웠습니다. 진압군들이 들어올 때 건물 하나하나를 두고 시가전을 했는데 학생들이 많이 죽었지요. 순천에서는 철도노동자들이 무장하고 진격할 때 희생이 컸습니다. 당시 여수군당 지도핵심으로는 유목윤·이용기·주희 등이었는데 그때 지도부 핵심은 다 죽고 유목윤만 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이학영 : 순천에서의 이야기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윤기남 : 저는 사건이 날 당시에 낙안에 있었습니다. 낙안으로 간 것은 당에서 내 몸을 조리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고문당해서 몸이 약해 있었고, 시내에 있으면 아무래도 좀 불안하고 한테 시골 있으면 그래도 닭이라도 한 마리 삶아주고 편히 좀 쉴 수 있었으니까요. 몸을 복구하라는 뜻이었겠지요.

일이 터지니까 순천군당에서 급히 올라오라는 연락이 와서 시내로 들어갔습니다. 버스같은 것은 없을 때니까 불치재를 넘어 상사로 해서 한 오십 리 길을 걸어갔습니다. 당시 내 별명이 오토바이였지요. 순천에 가니까 간부회의가 열리고 있었어요.

당시 동부 6군에는 도당 동부 6군 블록책임자가 있었습니다. 책임자와 부책임자로 둘이 있었습니다. 군당 오르그들까지 하면 7~8명 되었습니다. 동부 6군이라고 하면 순천·여수·광양·보성·구례·고흥입니다.

이학영 : 각 군당 오르그들이 함께 회의를 합니까?

윤기남 : 그렇죠. 지도원들 이하 모두 참가를 하죠. 그들도 순천군 내에 있으니까 순천군하고 직접 행동을 같이해야 할 것 아니예요? 그래서 순천군 지도부하고 블록책임자들하고 함께 만나서 이야기가 된 거지요. 토의가 되었지요. 그때 블록책임자는 이주차라고 목포사람으로 목포상고 출신입니다. 당시 저전리 비밀아지트에서 회의를 했는데, 여수에서 부대들이 도착하기 직전이었을 겁니다. 당시 이주차, 염동무, 조직부장, 선전부장 등 다 참석했어요.

이학영 : 그럼 군대가 도착했을 때 회의 중이었으니까 시민들 참여는 전혀 없었겠습니까.

윤기남 : 없었죠. 아직 우리들이 회의를 하고 있을 때니까요. 조직 참여가 없었을 때지요.

이학영 : 그럼 군대끼리만 싸우고 있었겠군요?

윤기남 : 부대가 도착해가지고 장대다리 쪽으로 진격을 할 때였지요. 일부는 그전에 제재소가 있는 도사 쪽으로 돌아가고, 일부 부대는 장대서 생목 뒤로 돌아 봉화산 쪽으로 전개해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우리는 그때 한참 밤부터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논의의 주제가 부대의 봉기 하에 우리 지하당이 합류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블록 책임자인 이주차는 합류하자고 하고 주로 반대는 제가 했지요. 둘이 대립된 의견이죠.

그 사람의 주장에 의하면 여수도 참여했으니깐 우리도 해야한다 그겁니다. 즉 조선민주주의 해결의 기본적인 노선은, 1948년 2·7구국투쟁 후 야산대가 나오고 5·10단선을 통한 과정에서 야산대의 활동이 일부 유격활동의 기초와 토대가 형성되고, 이렇게 발전되어오지 않았느냐. 그러니 실력투쟁 노선으로 나가야 한다. 평화노선에서 이렇게 변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나왔습니다. 그때 실제 야산대나 호대가 있었거든요. 별교 같은 데서 호대라는 유격대가 있었어요. 그때는 유격대라고는 안 했고 행동대라고 했지요.

이학영 : 순천군당 산하에 정식 조직으로 있었습니까?

윤기남 : 조계산에 있었지요. 그때 내가 쌍암에 블록책임자로 있을 때인데, 그때는 완전히 비밀이니까 내가 직접 책임자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식량도 대줘야 하고 했습니다. 그때 70~80명이 있었어요. 야산대는 일반적인 전체 조직이고 거기의 핵심들로 해서 야산대 안에 범호자 호대라고 있었어요. 야산대란 전체 지방의 생산유격대입니다. 일반 대중 지하조직입니다. 그 중에서 핵심을 호대라고 하는데 별교·보성 같은 곳은 한 30명은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여순사건이 났을 때 핵심적이고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여순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전명 유격대가 활동할 때 골간 기초가 된 것이 호대들인데, 그때 별교가 가장 셧습니다.

별교 보성은 5·10단선 때도 투표함을 싹 붙질러버리고 하지 않았습니까? 선거가 완전히 수라장이 되어버렸지요. 순천에서도 대구실 등에서 그렇게 하다가 실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부대들이 투표장에 가서 전부 붙질러버리고 했어요. 그때 각 군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유격대의 기본적인 골격입니다. 이주차 씨는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맑스레닌주의 원칙상 참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원칙이란 자연발생적인 폭동의 시기에는 당이 적극 가담해서 폭동을 계급 혁명투쟁으로 옮겨 이끌어야 한다는 거지요. 러시아혁명 당시에 볼셰비키 함대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당이 적극 참여했다는 사례를 이야기했지요. 물론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도 자연발생적인 투쟁이니까,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이 폭동을 우리가 요구하는 혁명적 폭동으로 전환시켜야 할 것 아니냐, 이것이 이주차 씨가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철도노조를 동원하여 완전 무장시켜서 우리 혁명군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 이런 방법의 문제까지 이야기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가 반대론을 전개한 것이지요. 그때 블록책임자와 나는 지위상으로 봐서 상당히 차이가 있었지만 회의니까 나는 강력하게 그것을 반대했지요. 첫째 반대이유는 당의 노선상 안 된다. 현 단계 우리의 노선은 평화노선이다. 조직노선도 따라서 평화노선에 입각해야 한다. 조직확대에 있다. 유격대 폭동노선하고는 배치된다. 당은 그 동안 조직배가운동을 전개하면서 확대해왔는데 우리가 폭동노선으로 전환한다면 조직노선은 어떻게 하느냐. 전투화·혁명화가 기본적인 방법일 텐데 그러면 대치되지 않느냐. 지금은 폭동의 단계가 아니다.

그 다음 둘째로 조직원칙상 상급당의 아무런 지시도 없는데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우리 임의로 결정한다는 것은 안 된다. 아무리 자연발생적인 것이라고 해도 안 된다. 여기서 광주까지면 하루면 갔다가 이튿날이면 오지 않느냐. 알아보고 결정하자. 만약 조직적인 결정이 있었다면 우리에게 지시가 없을 턱이 없다. 14연대가 당의 지시에서 폭동을 일으켰다면, 도당에서도 이에 호응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을 것 아니냐. 그런데 무조건 군대에서 일어났다고 해서 우리가 지시도 없이 참여한다는 것은 안 되는 일이다. 상급당의 지시를 받고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저쪽에서는 시간적으로 이미 어렵지 않느냐. 이럴 때는 우리가 능동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또 주장했어요. 지금 상황은 내가 판단할 때 전국적인 상황이 아니다. 그 증거로는 만일 이것이 전국적 상황이라면 중앙에서도 연락이 있었을 것이다. 전망이 흐리다. 여기서 만일 우리가 폭동에 참여한다면 그후에 후유증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피해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걸로써 조직은 완전히 괴멸당하고 마는 것이 아니냐. 나는 못하겠다. 이것으로 영원히 해방이 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엄청난 피해를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러나 나는 나이도 어리고 조직상 부부장 정도여서 군당위원장이나 이주차 씨의 의견이 통해버렸어요. 오랜만에 옥하니 한번 일어나보자는 거였지요. 거기다가 그때만 해도 그들은 이론 정연하게 이야기하고 나는 아직 세련되지 못했지요. 나는 원칙만 제시할 뿐이었죠.

그때 순천군당은 인텔리당이라고 이름이 난 데입니다. 최하가 중학 출신이고 대부분 대학생들이었어요. 그때 나는 국민학교 나온 사람으로 혼자뿐이었어요. 나도 그 덕에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만. 이석기라고 하는 인민위원장도 아마 거기에 찬성했을 거예요.

참여를 결정하자 나는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다시 낙안으로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도움될 일도 없고 몸도 두드려 맞고 안 좋았으니까요. 참여하기로 한 이상 지방에서도 따라야 하니까 내려오긴 했지요. 그렇지 않고 거기 순천에 그대로 있었으면 아마 죽었을런지도 모르죠.

순천에서 일어난 과정을 좀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19일 봉기가 일어났는데 20일 부대가 순천을 통과해서 바로 지리산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물론 그뒤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순천역에서 장대다리로 기차를 타고 올라오는데 일부는 여수역에서 낙오된 사람도 있고 그럴 거 아니예요? 당시 여수에는 학생들만 남겨놓고 부대는 쪽 빠져나왔거든요. 이주차 씨 이야기하고 다른 점이지요. 그 이야기대로 하면 한 군데씩 머물면서 차례차례 해방시키고 거기서 합동한 세력들에게 맡겨두고 정식으로 진격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하고는 달랐거든요. 부대는 얼른 바로 빠져나와버린 것이란 말입니다. 불만 질러놓고 빠져나온 거예요. 그 속에서 불만 타고 있고, 순천을 해방시키려고 온 것은 아니었던 말입니다. 지나갈려고 온 것이었어요. 오다가 보니 이들 군대들이 흥분했을 거 아니예요? 마침 오다가 오발을 해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학영 : 국군 쪽에서 싸가지고 말입니까?

윤기남 : 아니 오발해가지고요. 열차 안에서 뽕뽕한데 처음에 무장도 잘못되어 둘인가 희생되었대요. 그런 흥분된 상태에서 장대 저쪽에서 경찰들이 방어한다고 사격을 하는 거예요. 그것만 안 그랬어도 그냥 기차 타고 구례로 올라가버렸을 텐데 건너편에서 달리는 기차에 사격을 하니까 흥분된 상태에서 저 새끼들 죽여버리자 하고 하차를 한거예요. 그때는 또 경찰이라고 하면 무조건 미워할 때지요. 낙안에서도 군대가 들어와서 무조건 경찰을 그랬지요. 경찰 속에도 프락치도 있고 하는데 당조직이 일을 하는 게 아니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감정적으로 처리해버렸지요. 총 권 놈이 항상 왕 아닙니까? 물론 그때 노출된 프락치들은 모두 나와버렸지요. 당에서 소환해버렸으니까요. 그러나 죄를 가려서 처벌을 해야지 아무나 죽인다면 좌경의 오류를 범한 것이지요. 난리 통에 총 권 놈이 왕이니 어쩔 수 없었어요.

이학영 : 현지 당 간부들 지지도 안 받으니까?

윤기남 : 안 받고 말고요. 뒷처리만 하는거죠. 당은 당대로 보안대를 만들었지요. 결국은 전투가 불기 시작하니까 아까 말했듯이 일부는 도사 쪽으로 싸우고 일부는 봉화봉 있는 쪽으로 해서 포위해가지고 싸웠어요. 그때 마침 광주 4연대에서 지원을 나왔는데 그때 중대장, 나중에 1951년에 연대장까지 했습니다만 낙안 출신 김동희란 사람이 합류를 해버렸어요. 지원나왔다고 하니까 경찰들이 좋아라 하면서 요소요소 모두 시내 경비를 세우고 했어요. 그때 일개 중대

라고 하던가 50~60명이 가가지고 배치상황 파악하고 접전이 막 벌어지려고 하는 순간에 기관총 점령해가지고 다시 돌려서 때려쳤어요. 그래서 꿈쩍 못하고 전투도 제대로 못하고 순천이 점령당해버렸습니다.

사실 순천을 점령하는 데 4연대 친구들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김동희란 친구가 중요한 역할을 한 거지요. 이제 함락이 되어버려 어쩔 수 없이 참여는 해야 했습니다. 그때 순천철도노조원 출신인 김철성이라고 별명인데 보안서장을 했습니다. 조곡동 출신으로 본명이 서 뭐인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950년도에 도유격대 부사령으로 있었는데 그때 그 친구가 군사지도원으로 있었습니다. 군사지도원으로 있으면서 나하고는 참 오랫동안 같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때는 보안서가 주관이 되어가지고 활동을 했습니다. 활동이라고 해봐야 요새 말하면 치안이지요. 그래가지고 철도노조원들 모두 무장시켜서 자체경비하고 그랬지요. 그때 할 일이란 게 뭐 있습니까? 여맹이니 민청이니 모두 들고 나와서 간판 걸었고 인민위원회도 간판을 걸어버렸습니다. 남김없이 모두 다 나와버린 겁니다. 그래서 뭐 밥을 한다, 반동을 잡으러 다닌다, 수색한다 하면서 완장 차고 난리법석을 일으킨 것입니다. 나는 낙안에 있어서 그관은 잘 모릅니다.

이학영 : 깜빡 좋은 세상이었겠군요.

윤기남 : 그렇지요. 이제 활개치고 그 난리가 나버렸지요. 그러다가 하루 전투를 하고 방어를 하고 했어요. 그때 대치 상황이 어떠했는가 하면 솔치재에서 대치를 했어요. 진압군들은 쌍암에 본부를 두었고 낙안 쪽으로는 보성에다가 본부를 두었어요. 이쪽은 조성 쪽에서 대치를 했어요. 군산 연대들이 왔고 마산 연대들도 와서 전투가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친구들이 22일 밤 새벽엔가 밤 12시를 기해가지고 부대가 짝 빠져나가버렸어요. 군당에 연락도 안 하고 주력이 빠져나가버린 거예요.

이학영 : 군당에 연락도 안 했어요?

윤기남 : 그랬지요.

이학영 : 그럼 남아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윤기남 : 그러니까 많이 죽어버렸지요. 더 많이 죽어버렸어요. 같이 도망을 가든가 해야 했는데, 생물을 거쳐서 해룡 쪽으로 해서 광양으로 빠져버렸어요. 광양 백운산으로 들어가서 지리산으로 건너간 것이지요. 가다가 마산 연대하고 부딪쳐가지고 마산 연대장을 생포해서 올라갔어요. 나중에 놓아주었다고 하는데, 그후에 처형당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지리산까지 갔다가 석방해주었거든요.

주력부대들이 올라가버리고 그 나머지들은 그만 아침에 싹 포위되어버렸어요. 그 과정도 들어보면 아주 희한합니다.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솔치재에서 공작에 넘어간 거죠. 저쪽 군대가 자기들도 반란을 일으킬려고 한다, 이리 나와라, 그래가지고 합류를 했어요. 저쪽에서 진격해온 부대들이 말입니다. 거기서 이미 전투계획을 싹 세워가지고 합류를 시켰단 말이죠. 이 부대가 합류했다고 모두 좋아하면서 그냥 시내로 모두 진주시켜버렸습니다. 적이 무혈진주해버린 셈이지요. 이쪽은 사기충천했지요. 일반인이야 이 부대가 저 부대인지 어떻게 구분하겠어요? 그래서 그 부대는 그때 순천농업학교에다가 본부를 두었어요.

이학영 : 주력이 나가버린 다음의 이야기입니까?

윤기남 : 아니죠. 아직 주력이 나가지 않았을 때입니다. 솔치재 방어과정에서 생긴 일이죠. 아마 1~2개 중대는 되었던가봐요. 그런데 그날 밤 12시에 쿠데타를 하기로 하고 그 안에 시내 상황을 완전히 파악해버렸지요. 주력은 눈치채고 빠져버렸는지, 모르고 빠져버렸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몰랐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같은 반란군이라고 생각했겠죠. 같이 가자고 하니 그것들을 반대했던지도 모르죠. 그 당시 철도 노동자들이 무장하고 지키고 있었는데 12시를 기해서 진압군들이 전부 하얀 띠 두르고 전화로 연락하면서 일시에 들고 일어나버렸어요. 이전

뭐 식은 죽 먹기죠. 그때부터는 보이는 대로 트럭을 타고 다니며 대기하고 있다가 마구잡이로 잡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잡아다가 농업학교 창고에다가 처박았지요. 철도노조 보안대원들이란 세력도 날새기 전에 거의 전멸되어버렸어요. 적이 온지도 모르고 전부 다 잡힌 셈이지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런 이야기는 그때 보안대장으로 있었던 김칠성이란 사람한테서 직접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살아나와가지고 이야기한 겁니다.

날이 밝아지니까 완전히 포위당해가지고 전투도 못해보고 완전히 당해버렸어요. 여수는 주력이 빠졌어도 학생들이 미평에서 얼마나 치열한 방어전을 했습니까? 군인이 빠져나가고도 자체역량으로 이틀인가 사흘인가를 방어했습니다. 사흘간 방어를 했어요. 그런데 순천은 그것도 못하고 당해버렸어요. 그래서 막 수색을 하고 젊은 사람들은 무조건 데려다가 농업학교에 잡아가두었는데 나중에 학살을 시작했어요. 그때 중요한 것은 완장 찬 사람, 뭐 한 사람은 전부 다 당했고, 전 시가지는 집집마다 이 잡듯이 완전히 뒤져서 젊은 사람은 무조건 데려갔어요. 그때 빠져나가다가 죽은 사람이 말도 못하죠. 상사 저 쪽에 그 절간 뒤 지금 순천고등학교죠. 그쪽으로 수백 명이 빠져나가다가 잡히고 동일의원쪽 뭍니까 점병이라고 합니까? 그쪽에서도 접전이 되어가지고 도망가다가 잡힌 사람들은 모두 현지 총살당했죠. 지금 순천대 그쪽에서 총살장 놔두고 총살을 했어요. 그때 피해가 당시 이야기로는 3,000이라고 했는데 그렇게는 못 되었을 거고 1,000명은 훨씬 넘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진압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이제 수습을 해야 하는데, 살아남은 사람은 전부 다 산으로 올라가 버렸으니까요. 나는 당시에 낙안사람들은 절대로 노출시키지 않았습니다. 군당에서 낙안도 참여하라고 뭐 면사무소에 간판도 걸고 그랬더라고요. 그러나 낙안 송광 쪽으로는 꿈쩍 못하게 눌러놔버리고 시내 상황이 답답해서 별량면으로 올라와보니까 거기도 막 간판을 걸어 놓고 야단이더라고요. 그래서 싹 불러내가지고 마침 후퇴하던 때라 모두 후퇴를 시켰습니다.

이학영 : 후퇴는 어디로 했습니까?

윤기남 : 별량 대동으로 해서 상사 쪽으로 갔어요. 그때는 촌에 나가면 그전에 돌아다녀봐서 다 알기 때문에 어디 누구에게 가면 숨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디 누구누구 세포하면 나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대동에서 상사 쪽으로 그 다음에 다시 낙안 쪽으로 숨어서 복귀했어요. 거기다가 거점을 두고 수습을 했지요. 그런데 문제는 군당하고 연락을 해야 하겠는데 군당에 연락이 안 되는 겁니다. 줄이 완전히 떨어져 버렸으니까요. 죽을 사람들은 다 죽어버린 상태고요.

이학영 : 그때 조직원들 중에서 간부들은 얼마나 죽었습니까?

윤기남 : 군당 간부들은 거의 다 죽었습니다. 군당위원장, 조직부장도 죽고 선전부장만 살아났어요. 이주차도 살아나왔어요. 이주차도 살아나오고 성긴가도 덕긴가도 살아나오고 서정섭이도 살아나오고 그 다음에 문화부장 하던 김채영이도 살아나오고요. 철도 간부들은 전부 다 살아났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그 난리를 겪어놓으니까 어디로 내뺀다고 하니 서면 구상고랑으로 들어가가지고 용계산에 박혀있더라고요. 그때 구상 조직이 좋았습니다. 서면 세력이 제일 좋았고 구상고랑하면 밝은 낮에도 막 거기 가서 박혀요.

나는 낙안 있다가 쌍암·낙안 이쪽 두 개 지구를 수습을 했습니다. 쌍암 쪽으로 내려가서 연락을 하니깐 김용길이 있어서 거기 남겨두고 서면으로 가서 군당하고 연결이 된거지요. 그때는 부락에 있어도 아무 일도 없었을 때인데도 모두 벌벌 떨면서 용계산에 땅굴을 파고 전부 거기서 숨어서 밥만 퍼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습을 하기 위해 상의를 하고 도당과 연결할 공리를 시작했어요. 도당에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 도당에 누가 보고서를 작성해서 올라갈 것이냐. 그런데 다 겁을 먹고 안 올라가려고 해요.

이학영 : 잘못을 저질러놔서 그랬습니까?

윤기남 : 잘못도 잘못이지만 그때는 가다가 걸리면 죽는 판이랴요. 그때는 순천 쪽에서 올라왔다고

하면 젊은 사람들은 무조건 잡히면 총살을 했어요. 곡성 이쪽에서 그랬어요. 순천 쪽에서 올라왔다고 하면 구체적 근거도 없이 반란군에 가담했다고 해서 그랬지요. 이주차 씨가 그때 자기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두 내가 반대하였으니까 내가 올라가야 한다고 해서 할 수 없이 도에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월등으로 빠져서 봉주산에 들어가서 거기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때 완전히 새신랑차림으로 명주 바지저고리를 입고 가장을 하고 친척집 간다 하고 곡성 석곡을 거쳐 화순 백아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보름재로 해서 수리로 빠져가지고 이도로 거쳐 무등산 잣고개로 해서 광주로 올라갔어요. 하루 저녁 수리에서 잤지요.

도당에 가서 보고를 했는데 그때 욕을 얼마나 먹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반대를 했다고 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일꾼이라는 것이, 아무리 반대해도 옳다고 하는 것은 관철시키는 것이 일꾼이지 그것을 변명이라고 하느냐고 하는 거예요. 일단 보고를 다하고 수습대책을 상의한 다음 다시 내려오다가 능주에 와서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도당 오르그하고 나하고 둘이 잣고개를 넘어서 화순 남면을 가다가 경찰들하고 하마터면 맞부딪칠 뻔했어요. 우리가 미리 발견해서 숨었기 망정이지 산속에서 영락없이 만나서 죽을 뻔했어요. 산속에서 만나면 틀림없으니까요. 석곡에 와서 보성강 상류를 건너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건너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금방 경찰들이 젊은 사람들 데려다 죽이고 갔다고요. 지방이건 순천 쪽에서 빠져나가는 사람이건 잡히면 다 죽이는거죠. 그러나 사람 하나 앞에 정찰시키고 죽을 각오로 보성강 상류를 건넜습니다. 시체를 보고 건넜으니까요. 그때만 해도 내가 통이 좀 컸던가 봐요.

내려와서 김용길 씨를 군당위원장으로 내가 추천을 했지요. 김용길 씨가 그전에 아주 싸움도 잘하고 했거든요. 용감한 사람이었어요. 주암에서 집회를 하는데 경찰이 총을 뿜뿜 쏘는데도 연설을 그대로 해서 영웅시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때 용길 씨는 이론이 좀 빈약했지만 당을 전투화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지요. 이제 당이 대중조직이 아니고 완전히 전투조직이 되어버렸을 때니까요. 이제 죽느냐 사느냐 하는 싸움판이 되어버린 겁니다. 아마 순천 군당뿐이 아니라 다른 지역 당도 서서히 그렇게 변해갔을 것입니다. 탄압이 심해지고 무장투쟁을 하기 시작했으니까요.

조직은 내가 책임지고 했는데 용길 씨가 한 달이나 군당위원장을 했을까? 도당에서 보고 도저히 역량이 안 되겠다, 제대로 통솔이 안 된다고 해서 다시 내가 군당위원장이 되었습니다. 도당 소속 오르그로 강이란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하고 사사건건 충돌이 있었기 때문이죠. 내가 순천군당위원장이 된 것이 1948년 12월쯤이나 되었을 겁니다. 수습한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던 때였으니까요.

그렇게 군당위원장으로 쫓 있다가 1949년 4월에 내가 도로 다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부대를 강화시켜야 한다고 하면서요. 당시 유격부대는 완전히 전투만 수행하다가 보니까 유격대와 당의 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있었어요. 총을 들었으니까 당의 지시가 잘 안 먹히는 경우가 생기죠. 권위가 없는 사람을 갖다가 당에서 파견해가지고 앉혀놓으면 권위가 안 서요. 실제 싸운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보성지구 사령관으로 내려갔습니다. 1949년 4월인가 5월쯤입니다. 보성지구 사령관으로 있으면서 보성·고흥·순천 이쪽에 있는 부대들을 규합해서 그때 3개 중대가 만들어졌어요. 1개 중대가 한 60명 가량되었으니까 모두 200여 명 되었습니다.

보성의 천봉산을 거점으로 하고 모후산·조계산을 왔다갔다 했지요. 그것이 조금 있다가 발전해가지고, 5월에는 도 사령부가 형성되고 도당이 형성되어 유치에다가 본부를 두고, 내 유격대 일부가 올라가 도 유격대가 되었습니다. 일부는 지리산으로 파견되고 유치 이쪽으로는 보성지구에서 올라가서 전남의 유격대를 형성했지요. 자체투쟁을 거치면서 확장도 되고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하자면 한도 끝도 없는 거니까 여순사건에 대한 것은 여기서 그치지요.

